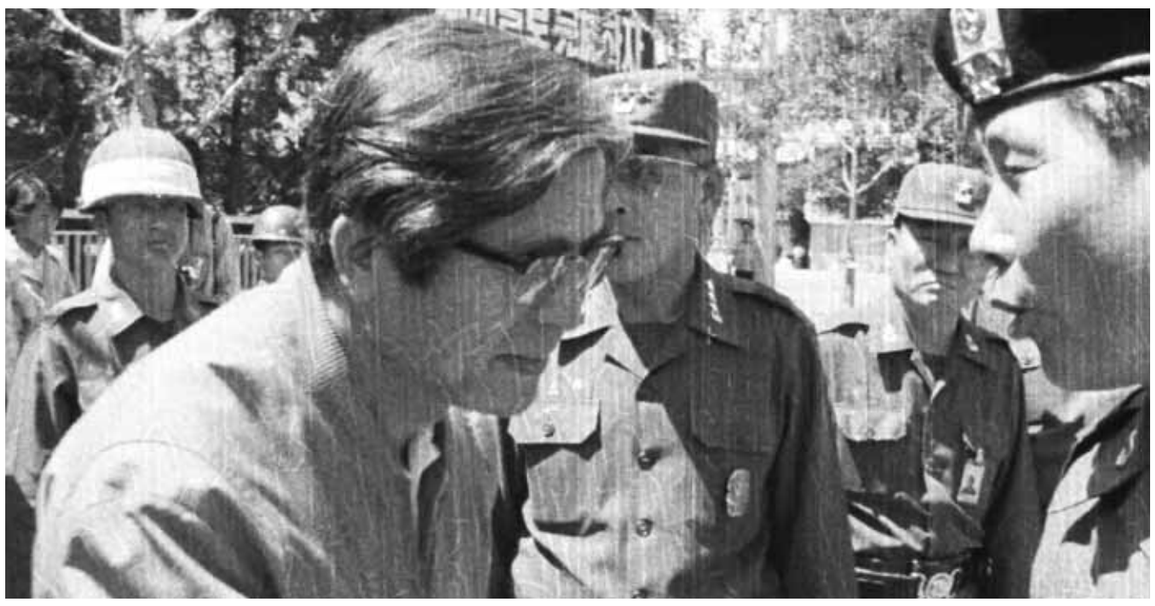
우암학원 창학67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세계로 앞서가는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748호 1판 (음력 3월 26일) 2018년 5월 11일 금요일

www.tphtoyota.com
BEYOND POSSIBLE. BEYOND PLEASURE.
SMART HYBRID 4th GENERATION PRIUS
TOYOTA
광주전시장 062-371-8383 | 전주전시장 063-273-3222

"5·18 동영상 파장 … 집단발포 담긴 원본 찾아라"



도청 진압작전 때 광주 온 특전사령관 정호용 광주항쟁 무력진압 직후인 1980년 5월 27일께 전남도청을 찾은 정호용 특전사령관에게 장형태 전남지사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하고 있다. 검은 베레모를 쓴 정 사령관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육사 동기(11기)이자 광주시민들을 무차별 진압해 악명을 떨친 공수부대의 지휘관이다. 올해로 88세가 된 정 사령관은 과거 국회 청문회, 검찰조사 등에서 "부대를 현지 지휘관에게 배속시킨 탓에 나는 지휘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영상 촬영=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영상 촬영자 누구냐 관심 … 軍 채증반일 가능성에 무게
항쟁 전과정 촬영 후 삭제한 듯…제2·제3 영상 존재할수도
5·18 진상조사위 미공개 영상물 발굴에 총력 기울여야

1980년 5월 21일부터 6월 1일까지 광주 모습이 담긴 '5·18미공개 영상'〈**광주일보 2018년 5월 9일자 1·3면**〉이 지난 9일 공개되면서 익명의 촬영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익명의 촬영자가 전시를 방불케하는 상황에서 시위군중과 계엄군 진영 양측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군 고위 관계자, 시신 안치실, 시민군, 망월묘역 등을 근접 촬영했다는 점에서다. 시민을 겨냥한 집단발포·헬기사격 등 계엄군 진압상황이 담기지 않았기 때문에 군 관계자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올가을 출범할 5·18진상규명위원회가 문서기록, 관련자 증언에 의존해왔던 관행을 넘어 미공개 영상물 발굴에도 총력을 기울여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5·18영상 누가 찍었나= 5·18기록관은 지난 3월 익명의 수집가에게 이 영상물을 구매했으며, 소장자의 수집경로와 촬영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익명의 촬영자는 크게 군 관계자(정훈장병 등 채증반), 방송기자 등 언론인, 전남도청 등 행정공무원으로 좁혀지는 모양새다.

군출신 인사 등은 "광주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군 내부 보고용 영상으로 보인다. 광주 상황의 처음과 끝을 보고 싶어하는 군 수뇌부 의도에 맞게 촬영·편집한 영상, 또는 여러 촬영본을 짜깁기한 영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행정공무원이 촬영한 영상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촬영자는 통상 자신이 속한 기관의 장을 앵글의 중심에 배치하는 관례를 감안한 추론이다. 실제 영상에서는 광주항쟁을 유혈진압한 직후인 5월 27일께 전남도청을 찾은 주영복 국방장관과 진종채·소준열·정호용·박준병 등 계엄군 고위 지휘관을 잡으면서도 장형태 전남지사를 클로즈업했다.

그러나 당시 전남도청 공보팀에 근무했던 관계자는 "당시 전남도청에는 영상촬영 장비가 없었고 보유했더라도 공무원이 영상을 촬영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방송기자가 찍은 영상이라는 의견도 있다.

◇집단발포 담은 원본, 또 다른 영상 있나= 영상을 누가 찍었는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익명의 촬영자가 촬영한 원본 존재 가능성 때문이다. 72분짜리 영상이 유독 집단발포, 헬기사격 등 그동안 군이 공개하고 싶어하지 않은 장면이 담겨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촬영 후 편집 과정에서 삭제된 게 아니냐는 것이다. 5월 27일 광주항쟁 유혈진압 후 도청을 찾은 주영복 국방장관, 진종채 제2군사령관(중장)보다 소준열 전투병과교육사령관(소장·전교사령관 겸 전남북 계엄분소장)을 위주로 영상이 찍혔다는 점에서 전교사령부 소속 군인이 촬영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군 출신 인사들에게서 나온다.

이런 정황에 기대어 80년 5월 광주의 모습을 담은 군의 영상이 '전교사 본', '특전사령부 본', '제2군 사령부 본', '보안사령부 본' 등 군 기관별 촬영본이 존재할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5·18민중항쟁 38주기를 앞두고 학살 장본인들이 활짝 웃는 모습이 담긴 영상 공개되면서 5·18 유공자 단체 등 시민들의 분노도 폭발하고 있다. 그동안 5·18진상규명 움직임이 문서 및 관련자 증언에 의존해왔다는 점에서 그 범위를 미공개 영상 발굴까지로 확장하고 자료 가치에 따라 납득할 만한 보상을 해 잠들어있는 5·18자료가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북미정상회담 6월 13일 싱가포르 유력

판문점은 제외된 듯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 개최지로 '중립적 외교무대'로 평가받는 싱가포르가 유력 후보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후보는 10일 북미정상회담과 관련, "싱가포르가 개최지로 유력하며 6월 12일에 도착해 13일에 열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친문(친문재인) 인사인 최 후보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 생각이나 상상력으로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라며 북미정상회담 일정 및 장소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한이 (북미정상회담 장소로) 싱가포르를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 있었는데 테스트를 했다고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그간 유력 개최지로 검토해온 판문점과 싱가포르 가운데 판문점을 제외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면서 싱가포르 개최 쪽으로 힘이 실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각료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는 시기를 정했고 회담 장소를 정했다. 우리는 사흘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때 회담 장소로 직접 거론했던 비무장지대(DMZ) 내 판문점에 대해서는 "거기는 아닐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미국 언론도 싱가포르가 첫 북미정상회담 개최지가 될 것이라는 보도를 내놓기 시작했다. CNN은 미국 정부 관리들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북미정상회담을 싱가포르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고 준비작업에 착수했다고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참사 4년만에 바로 선 세월호 10일 목포신항에 거치된 세월호가 직립에 성공, 참사 4년 만에 바로 세워졌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7월 초, 그동안 진입하지 못했던 4층 선수 좌현을 중심으로 미수습자 수색을 재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6면 /연합뉴스

문대통령 "평화가 일상이었으면…"

취임 1년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인 10일 "지난 1년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면서 "평화가 일상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소회 글에서 "임기를 마칠 때쯤이면 '음 많이 달라졌어. 사는 것이 나아졌어' 라는 말을 꼭 듣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처음처럼,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이번 글에서 "대한민국 1년과 대통령으로서 1년, 쉼 없이 달려온 1년이었다"고 소회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취임 후 1년을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자 한 1년,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면서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하고자 한 1년, 핵과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고자 한 1년이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면서 "국민의 삶으로 보면 여전히 그 세상이 그 세상 아닐까 싶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래도 분명히 달라지고 있고,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된 1년이었기를 진정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2018년 무안공항직항
이제 편리하게 가까운 무안공항에서 조이투어와 함께 하세요! 쭈쭈욱~~~
일본기타큐슈,오사카,다낭,방콕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LTD 여행길이 즐거운 동반자!!!
대표전화 062-234-3222
FAX 062-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80(금남로5가)
일본여행 / 국내 · 제주여행 / 해외여행 전문여행사 조이투어
Daum 조이투어 검색 http://www.joytour.kr
가까운 무안에서 일본 기타큐슈 온천여행
5/13일부터 주 3회 출발 / 화,금,일 정기편 확정
운항스케줄 오후(화,금,일) 무안-기타큐슈 18:00-19:10 / 기타큐슈-무안 19:40-20:50
기타큐슈 (일 출발) 한정 특가
2박3일 호텔1박 /고급 온천별장1박 399,000 원~
2박3일 호텔1박 / 온천료칸1박 499,000 원~
3박4일 호텔2박 /고급 온천별장1박 599,000 원~
야마구치품격 699,000 원~
무안↔오사카 제주항공으로 떠나는 나만의 자유여행
오사카,나라,교토 [2박3일] 699,000원~ 출발일 (6/20,6/27)
오사카,와카야마,교토,나라,고베 [3박4일] 899,000원~ 출발일 (6/28)
※일본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 포함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낭만이 넘치는 지중해 크루즈 10일
(이탈리아 ,베니스,크로아티아,그리스)
광주출,도착 ALL 포함 4,600,000원
무안↔북해도 전세기 취항 !!
7/18부터 ~ 8/21까지 총 19회
7월 18,21,24,25,27,28,30,31 8월 2,3,5,6,8,9,11,12,14,17
[품격 준특급 +특급] 1,290,000~
[고품격 특급] 1,450,000~
[골프 특급] 1,790,000~
무안↔블라디/하바롭 전세기 취항 !!
7/11부터 ~ 8/16 까지 총 13회
[알뜰 3성급] 1,090,000~
[실속 5성+3성급] 1,190,000~
[품격 5성급] 1,350,000~
극성수기 요금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광주 - 제주도
2박3일 (주중) 299,000원~ / 2박3일 (주말) 379,000원~
※모든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 포함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안 ↔ 다낭 직항전세기 3박4일(화) / 3박5일(금)
2018. 5.18. 이후 (매주 화, 금 출발) 쭈쭈욱 ~~~
VN 베트남국영항공사 (스카이팀) 차별화된 기내서비스
A-321-200 비즈니스 13석 이코노미 161석
기내식 음료 ,맥주,기내담요,베개 비디오상영
화출발 무안-다낭 08:05-10:40 / 다낭-무안 14:40-20:30
금출발 무안-다낭 21:35-00:10 / 다낭-무안 01:05-06:55
[골드] 다낭,후에,호이안 4일 699,000~
[골드] 다낭,후에,호이안 5일 769,000~
[프리미엄] 다낭,후에,호이안 4일 799,000~
[프리미엄] 다낭,후에,호이안 5일 969,000~
※다낭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포함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안↔방콕 파타야 정기편 제주항공
준특급 : 649,000원~ 특급 : 699,000원~ (6/20출발확정)
※ 양국정부인허가조건 ※ 운항스케줄이 항공사 및 천재지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발 날짜와 인원 수에 따라 상품 가격이 다르오니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제동다2003-1호
◆ 공통조건 : 여행경비 1인 기준, 여행자보험 가입(해외상품: 1억원, 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 / 전 지역 ◆ 최소 출발인원 : 상품에 따라 다름
◆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할증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공제 가입 업체 ◆ 예약시 계약서 (최소 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경비(입장료,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택관광, 각국 비자비용 별도)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